



대한치과의사협회 제 4 회 지부장회의



제 4 회 지부장회의

지난 2월 11일
오후 4시
치협회관에서
협회임원 및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4 회 지부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김정균 협회장은 올해 치과의사 국시 부정행위 사태를 개탄하면서 치과의사 국시와 관련하여 의사국가시험처럼 내년도부터 치협에서 관장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국시설립 및 내년도 당장 실시에 치정회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을 통합한 의료원 국가고시원의 설립도 정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치과기공료 인상문제와 관련 단합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으며 올 지자체 선거와 관련 많은 회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

부하면서, 치협, 의협 등의 회장들이 가진 지난번 모임에서 각 지역내 의료인 출마 때 단체를 초월,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국민건강 증진 법안 활성화 방안으로 구강보건주간 행사를 보다 확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의 예산 설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보건소의 치면열구전색사업의 진료비와 관련, 예방차원에서 전액 무료 진료할 것을 주장했다.

또 최근 외국치대 출신자들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밀려드는 외국치대 유학생 문제를 문제시한 점을 들어 치협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한편 치협집행부는 전남전문대 부설치과의원 개설 움직임과 관련 현재 법적 규제책이 없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측과 연구 검토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협회장 직선제, 치과의사 수련기관 실태조사의 치협 예산 반영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DENTAL NEWS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



총회 개회 장면

대한치과 위생사협회 (회장 김숙향)는 지난 18일(토) 오후 3시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강당

에서 제 14 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많은 회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김성애 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개회선언, 국민의례, 치과위생사윤리 강령 낭독, 협회장 인사, 시상, 축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숙향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 및 치위생사의 발전과 치과계 인력수급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강은주(충북회 전회장)씨께 공로패를 시상하였으며, 이어 진행된 축사순서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정균 회장의 축사를 전윤식 부회장이 대독하였으며, 대한물리사협회 한병훈 회장의 축사와, 대한치과기공사 협회 조동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구강악안면방사선학 담당교수

- Work shop 개최-

대한구강악안면 방사선학회는 지난 17-18일 양일에 걸쳐 경주 조선포털에서 구강악안면방사선학 담당교수 work shop은 학회 및 전공의와 학생교육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 전문의 제도에 관한 시행규칙(안) 제정”과 “구강악안면방사선 전문의 교과과정 설정” 및 “기타 토의 안건”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치의학 博士 78명 탄생

전국 10개 치과대학에서 94학년도 2학기 박사 78명과 석사 2백 55명이 배출됐다.

서울치대의 김장식(치과생체재료학)씨를 비롯한 19명, 경희치대의 김원철(구강악안면 방사선학)씨를 비롯한 5명, 연세치대의 김현영(치주과학)씨의 12명, 조선치대는 김일섭(치과 교정학)씨의 4명, 경북치대는 문선혜(구강외과학)씨의 2명, 부산치대는 손영순(구강악안면 방사선학)씨의 2명, 전남치대는 고정석(치과교정학)씨의 8명, 전북치대는 김민숙(구강악안면 방사선학)씨의 5명, 원광치대는 이세종(치과보존학)씨의 3명, 단국치대는 김삼근(구강내과학)씨의 9명으로 총 78명이다.

단국치대 한국생체재료학 연구소를 방문한

글린 O. 필립스 박사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문위원인 필립스(Prof. Glyn O. Phillips) 박사가 단국치대 한국생체재료학 연구소(소장 임창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기술협력 차원으로 방한하였다.

노스 이스트 웨일즈대 총장을 역임한 후 현

재 유럽조직은행 재무이사, 뉴텍(Newtech) 연구소 소장 및 국제원자력기구 조직이식재료의 안전한 방사선 멸균 사업의 자문위원인 글린 O. 필립스 박사는 일반사람들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방사선이 인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누비며, 각국의 이해를 돕고 있다.

글린 O. 필립스 박사는 『IAEA 기능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각국의 핵사찰과 각국의 원자력 발전 및 평화적 이용과 기술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단국치대 생체재료학 연구소는 IAEA의 RCA(지역간 협약 : Regional Cooperated Agreement) 사업의 일환으로 선택된 것으로서 한국의료계에 원자력의 활용방법을 맡게 된 것이며, 정부의 과학기술처의 도움을 받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파악하여 향후 5년간의 상호 연구계획을 논의하고자 방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주된 연구는 방사선 멸균처리 이식 재료를 만드는 것』이라는 필립스 박사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미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술을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천했었다』며 안정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통산 EO가스로도 멸균처리를 하나 화학기가 남아 조직내 변질의 우려가 있으며 침투성이 낮아 완벽한 멸균처리가 어려운 반면 방사선은 완벽하게 멸균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 분야에는 방사선 멸균 탈회골의 이식 성공률이 높으며, 실제로 단국치대 임창준 교수는 1백35차례의 방사선 멸균 탈회골 이식을 실시, 97%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치과 외에도 피부이식시 2차 감염이 없고 인대이식시

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졌다.

필립스 박사는 현재 한국생체재료연구소가 걸음마 단계에 있으나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치과기자협회

-제10회 정기대의원 총회-



총회 개최 장면

지난 2월 18일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치과기자협회 제10회 정기총회가 20여개 회원

사의 전시회와 함께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태훈 총무이사의 186명 성원보고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95년도 예산안 1억 6천여만원을 원안통과 시켰으며 신임감사에 이명범(우리동명), 김대식(남성교역)씨를 선출하는 한편 9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회관건립안에 대하여 회관건립추진위를 설치키로 하였다.

또한 회원의 권익신장과 치과기자재관련 불합리한 현행법 개선, 유관단체와의 관계 개선 및 협회 위상 재정립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95년도 주요역점사업으로 1.회원 친목 도모 및 권익신장 2.회관 건립 추진 3.치과기자재 유동질서 확립 4.홍보활동 강화등 추진사업을 정하였다

치과기자재 전시와 병행된 이날 총회는 다수의 회원사들이 전시에 참여하여 지방회원과의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